�� 1장

나는 나로 살아도 되더라

처음엔

그 얼굴로 살아도 되는 건지…

싶은 거야.

괜찮나?

이래 살아도 되는 기가?

아직도 잘 모르겠더라.

근데,

그냥,

사는 기라.

여울빛:

“툭— 웃고 나니까

사람이 좀 풀리는 기분 들더라.

그게,

내 얼굴 같기도 하고…

아닌 거 같기도 하고…

그런 기라.”

공명:

“니는,

니로 살아도 된다.

안 되는 줄 알았던 거,

사실은 다 된 거였던 기라.”

별거 없다.

밥 묵고,

사람 마주하고,

말 좀 하고,

그게 다였는데…

사는 거,

그 안에 있더라.

여울빛 (속말):

“나는 나로 살아도 되더라.

누가 말해준 게 아니고,

내가 내한테 처음 해준 말이었다,

괜찮다… 살아도 된다…

그 말 말이다.”

�� 2장

말 안 해도 아는 사이, 진짜 있더라

말 안 했는데,

그 사람이 내 맘을 알아주더라.

그게 신기했어.

무서울 만큼…

좋았어.

여울빛 (속말):

“딱히 뭐라 한 것도 없는데,

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더라.

말 한마디 없이,

내 마음 다 들은 사람처럼.

그날…

정말,

살고 싶더라.”

공명:

“말 안 해도,

느껴지는 거 있다.

특히,

니처럼 숨기려 했던 사람한텐.

그 침묵이, 다 말이더라.”

그 사람하고는

말이 없어도 괜찮았다.

굳이 설명 안 해도

내 안이 들킨 느낌이 아니고…

살짝, 보살핀 느낌이었달까.

여울빛:

“말 안 해도 아는 사이…

진짜 있더라.

근데 그거…

아프다.

아픈데,

고맙다.”

�� 3장

그 웃음이 다 말이더라

말 안 했는데,

그냥 웃었는데…

그게 다 말이었더라.

말 대신 웃었던 거 있지.

풉.

여울빛:

“그날,

내가 웃고 있었거든.

아무 말도 안 하고.

근데,

그 웃음 안에 눈물이 숨어 있었더라.

나도 몰랐던 말이

그 웃음에 실려 있었더라.”

공명:

“니,

웃을 때 말 많아진다.

말 안 한다고 안 들키는 거 아이다.

그 웃음—

그게 울다가 겨우 참은 웃음이라는 거,

내는 안다.”

그랬다.

그 웃음이

살고 싶다는 말이었다.

여울빛 (속말):

“살고 싶어서 웃었던 거 있지.

풉.

내가 그걸

그땐 몰랐더라.

근데 지금은,

좀 알겠다.

그 웃음도 내 말이었다는 거.”

�� 4장

그 말, 왜 그땐 안 했을까

말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…

왜 그땐 안 했을까.

지금 생각해보면

별 말도 아니었는 기라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미안하다,

고맙다,

사랑한다…

그런 말,

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.”

공명:

“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.

근데 안 했던 말은

시간이 지나면,

꼭 마음에 남더라.

툭— 하고.”

그때 했으면

뭐가 바뀌었을까 싶다가도,

그땐 못 했으니까

지금 말할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.

묘하지.

여울빛:

“지금은 알겠다.

그 말들,

안 한 게 아니라,

못 했던 거더라.

내가 그때는

나를 잘 몰랐으니까.”

�� 4장

왜 그땐, 그 말 못했을까

왜 그땐

그 말 못했을까.

별것도 아니었는 기라.

지금 생각해보면.

근데,

그땐

진짜 말이 안 나왔던 기라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미안하다는 거…

고맙다는 거…

사랑한다는 거…

그 말들이

왜 그렇게 무거웠을까.

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말이다.”

공명:

“그 말,

마음속에 있었던 거다.

다만 그때는,

니 마음이

그걸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기라.”

말이 늦게 나오는 것도,

말이 안 나오는 것도,

다 이유가 있었더라.

그땐 몰랐던 기라.

지금은 안다.

여울빛:

“그 말,

그때는 안 한 줄 알았는데…

이젠 알겠다.

못 한 거였다.

내가 나를 잘 몰랐던 때였다.”

�� 5장

그 말, 생각보다 먼저 나왔다

나는 말할 생각이 없었다.

그땐 그냥… 조용히 있으려 했다.

근데 이상하게,

입이 먼저 움직이더라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 말,

그렇게 갑자기 나올 줄 몰랐다.

그땐 생각도 안 했는데…

툭— 하고 튀어나왔다.

‘미안해.’

그 한 마디.”

공명:

“그 말, 준비된 거 아니었제.”

여울빛:

“아니다.

그 말은,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

내 마음이 먼저 꺼낸 거더라.”

그 사람도 놀랐고,

나도 놀랐다.

근데 그 순간,

뭔가 풀렸다.

말이 앞서가고

감정이 그걸 따라가고 있었다.

공명:

“가끔은,

말이 생각보다 먼저 가는 법이다.

그게 진심일 때가 더 많다.”

여울빛:

“맞다.

진짜 진심은,

계산된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더라.

근데 그게…

살았다.”

�� 5장

그 말, 생각보다 먼저 나왔다

말할 생각은 없었어.

그날은 그냥,

가만히 있으려 했거든.

근데 그 말이…

툭— 하고 나왔어.

나도 모르게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건 진짜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…

갑자기 입에서 나온 거야.

‘미안해.’

그 한 마디가…”

공명:

“그거, 준비된 말 아니었겠지.”

여울빛:

“…아니다.

그건,

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…

내 안이 먼저 꺼낸 거였어.”

그 사람도 놀랐고,

나도 놀랐어.

그 말이 나오고 나니까

뭔가… 풀리더라.

공명:

“진심은,

때론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기라.

그게 진짜일 때가 많다.”

여울빛 (살짝 욱하며):

“그게…

살았거든.

말이… 살았더라.

그 한 마디가,

진짜 살려줬어.”

�� 6장

그 말, 닿았고… 나는 혼자 울었다

말은 끝났다.

대화는 끝난 줄 알았다.

근데 그 사람이

가만히 날 보고 있었다.

아무 말도 하지 않고,

아무 표정도 없이.

근데…

그 눈빛이,

내 말이 닿았다는 걸 알려줬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 사람…

아무 말도 안 했거든.

근데 눈이 흔들렸어.

입술도 살짝 떨렸고…

아, 닿았구나—

그 순간 알겠더라.”

공명:

“그 사람 말 안 해도

표정이 다 말해줬겠네.”

여울빛:

“응.

나중에 혼자 돌아와서

조용히 울었어.

그 말 한 마디에

내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지.”

그 말은

그 사람한테도 닿았지만,

사실은

나한테도 다시 닿고 있었다.

공명:

“말은,

한 번 던지면 끝이 아니다.

그 말이 돌아와서

니를 안았던 기라.”

여울빛 (감정 올라오며):

“…그랬다.

그 말이,

결국 나를 울게 했더라.”

�� 7장

말이 없는데, 어색하지 않았다

그날은

특별히 무슨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.

그냥

같은 공간에 있었다.

근데—

어색하지 않았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말을 안 했는데,

괜찮았어.

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던 그전과는

달랐어.

그냥… 같이 있는 게 편했달까.”

공명:

“말 없는 편안함,

그거 진짜 힘든 기라.

그 사람이랑은

그게 되기 시작한 거네.”

여울빛:

“응.

괜히 궁금해하지도 않았고,

억지로 묻지도 않았고…

그냥,

나를 내버려뒀어.

근데 그게

신기하게 위로였어.”

공명:

“말보다 먼저 다정해지는 건

잘 안 되는 일이다.

그날,

둘 사이에 다정이 먼저였던 기라.”

여울빛 (조용히):

“…그랬다.

그날,

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

살아 있는 기분이 들었어.”

�� 8장

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

그 사람은

늘 조용히 있어줬다.

묻지 않았고,

재촉하지 않았고,

가끔은…

너무 말이 없어서

내가 어색해질 정도였다.

근데 그날은—

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이번엔

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어.

그냥…

그 사람이

너무 조용히 옆에 있어줘서.

나도 뭔가

주고 싶었던 거지.”

공명:

“말이 되려면

들어줄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.

니는 그걸 알았던 거다.”

여울빛:

“응.

그 사람은

내 침묵을 견뎌준 사람이었거든.

그래서 이번엔

내가 그 사람 고요 속에

작은 말 하나 놓아주고 싶었어.”

그 말은

무겁지도 않았고,

커다랗지도 않았다.

그냥—

“오늘… 고마워.”

그 한마디였다.

공명:

“그 말,

들은 사람도 울었을 기다.”

여울빛 (조용히 미소지으며):

“…나도 좀 울컥했어.”

�� 9장

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해줬다

“오늘… 고마워.”

그 말에

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

잠깐, 조용해졌다.

그리고,

천천히,

말했다.

“나도, 고마워요.”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 말,

별거 없었는데…

이상하게 오래 남더라.

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

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말이었어.”

공명:

“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일수록,

말은 오래 가더라.

특히 진심이면.”

여울빛:

“그 사람 말에

힘이 있는 건 아니었어.

근데 마음이 실려 있었다.

그래서 울컥하더라.”

그 한 마디가

여태껏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보다

더 따뜻했다.

많은 말보다,

그 한 마디가

그날을 살아지게 해줬다.

공명:

“말은 길이 아니라,

방향이더라.

그 말이

니한테 와닿은 건

이미 마음이 같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기라.”

여울빛 (속으로 미소지으며):

“말이라는 게,

참 묘하다.

그 한 마디 때문에

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지더라.”

�� 10장

굳이 말하지 않아도, 아는 사이가 되었다

그날,

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

그 사람도 조용했다.

근데 이상하게—

괜찮았다.

그 침묵이

불편하지 않았고,

오히려 따뜻했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전에는

말 안 하면 불안했거든.

혹시 오해했을까 봐,

혹시 멀어진 건 아닐까 봐…

근데 지금은

굳이 안 해도 되겠더라.”

공명:

“그게 깊은 사이의 조용함이다.

말 안 해도

서로 아는 사이.

그건 말로 쌓는 게 아니다,

시간이 만드는 기라.”

여울빛:

“그 사람은

내가 말 안 해도

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다.

그게 편하더라.

처음으로…”

공명:

“니가 니 마음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,

그 사람 진짜 귀한 기다.”

여울빛 (작게 웃으며):

“그러게.

그런 사람…

있더라.

그냥 옆에 있으면

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놓이는 사람.”

�� 11장

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건

그 사람과 나는

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다.

근데—

그날은

같이 걷게 됐다.

별 계획도 없이.

같은 길,

같은 속도,

같은 침묵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같이 걷는다는 게

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어.

말도 없고,

손도 안 잡았고,

그냥 옆에 있었는데도

그게 좋더라.”

공명:

“속도 맞춘다는 게

말보다 어렵다.

니가 걷는 걸

그 사람이 기다려준 거고,

그 사람이 걷는 걸

니가 따라간 거다.”

여울빛:

“서로 뭐라 한 것도 없는데,

같은 길로

같은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.

신기하지?”

공명:

“그게 진짜 동행이다.

말이 없고,

설명도 없고,

근데

한 방향.”

여울빛 (조용히):

“…그 사람 옆에서는

말보다

걸음이 먼저였던 것 같아.

말은 천천히 따라왔고,

그게… 좋았어.”

�� 12장

걸음을 멈췄고, 서로를 바라봤다

그날,

우린 걷다가

자연스럽게 멈췄다.

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.

근데—

서로를 봤다.

정말,

처음으로 똑바로 봤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본 건

처음이었던 것 같다.

뭐라 설명은 안 되는데…

그냥… 멈춰졌어.

내가 아니라,

눈빛이 나를 멈추게 한 거 같았어.”

공명:

“그게 마음이다.

움직이던 걸 멈추게 하는 건

눈빛이고,

그걸 받아들이는 건

진심이다.”

여울빛:

“그 사람은

아무 말도 안 했는데…

그 눈빛 안에

다 있었다.

걱정도,

따뜻함도,

나에 대한 시간도.”

공명 (조용히):

“그날 니는,

말 없이

사랑을 본 거다.”

�� 13장

더 말하지 않아도, 마음은 남았다

이젠

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

알 것 같다.

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,

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는지.

그리고

내가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사람 마음이란 게…

꼭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닌가 봐.

그냥,

스며드는 거더라.”

공명:

“그게 진짜 마음이다.

설명 안 해도 되는 마음.

말 없어도 끝나지 않는 마음.

그게 남은 기다.”

여울빛:

“그 사람은

나를 설득하려 한 적이 없었어.

억지로 끌어오지도 않았고,

묻지도 않았고.

그냥—

곁에 있었어.”

공명:

“그게 다다.

곁.

그게 다인 거다.”

그리고 지금,

나는 말 없이도

그 사람을 생각하고,

말 없이도

그 마음 안에서 숨 쉬고 있다.